

Cywor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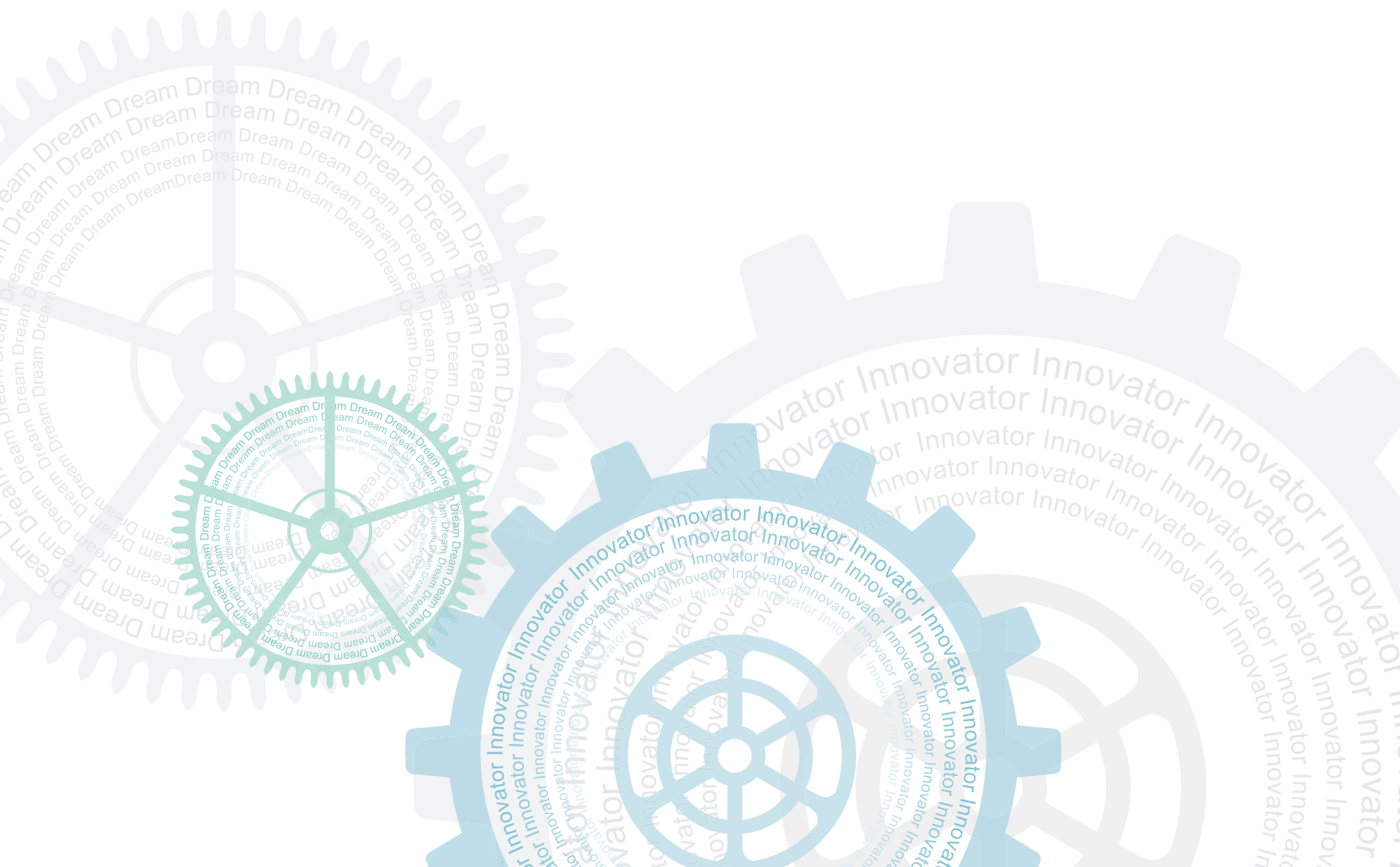
2016
SPR-SUM
Vol. 4

CYBER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DREAM

INNOVATOR

CYBER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꿈을 향해 혁신의 길을 가라’

DREAM INNOVAT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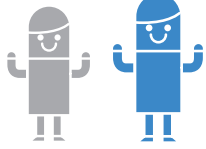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는 끊임없는 변화를 거듭하며
미래의 가치를 만들어가는 한 차원 높은 창의교육을 실현합니다.
지난 2015년, 국내 사이버대학 중 최초로 번들 및 클립 추천을 통한
과목이수관리 방법 특허를 출원했으며 모바일 강의에도
자막 서비스를 도입해 학습 성취도를 높였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혁신은 오직 ‘학생 중심’의 교육에서 나옵니다.
대한민국을 넘어 더 큰 세계를 이끄는 사이버한국외대는
사이버외대 가족 모두가 꿈을 향해
혁신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 김인철

CONTENTS

2016 SPR-SUM Vol.4



2016
혁신적인
성과



Section 1

푸른 미래를 키운다

- 06 **Cy외대 Highest Point**
2016학년도 입시의 특징과 성공의 원인을 분석하다
- 08 **Hot Column**
조장연 부총장 인터뷰
“누구나 지금 이 순간이 최고의 전성기다”
- 12 **Focus On**
사이버한국외대! 넌 어디까지 알고 있니?

Section 2

세계로의 문을 연다

- 16 **테마기획 1**
글로벌 해외 교류 프로그램 체험기
나는 세계를 무대로 공부한다
- 18 **테마기획 2**
인도네시아 유수 대학 및 기관과
활발한 교류활동으로 글로벌 특화 교육 강화
세계로 뻗어나가 큰 세상을 누린다

Section 3

내일의 가치를 창조한다

- 22 **Zoom IN - 열정의 현장 1**
Cy외대와 함께하는 ‘꿈을 향한 새로운 도전’
교수님과 동문을 함께 만날 수 있는 교류의 시간
- 24 **Zoom IN - 열정의 현장 2**
온 가족 축제의 장 ‘2016 Cy외대 봄나들이’
- 26 **Voice of Cy외대**
재학생 인터뷰
경쟁력을 갖춘 전문 인재의 양성
- 28 **Cy외대 동문파워**
졸업생 인터뷰
새로운 시작을 위한 특별한 시간
- 32 **학생감동 프로그램**
모든 것은 ‘학생 중심’에서 시작된다
- 34 **NEWS FROM Cy외대**
- 35 **Cy외대 입시정보**

Section 1

푸른 미래를 키운다



당신의 미래까지 생각하는 우리 대학은

지식의 수준이나 가치를 먼저 따지기보다

당신이 품고 있는 가능성과 잠재력을 발견해

그것을 일깨우는 교육을 실천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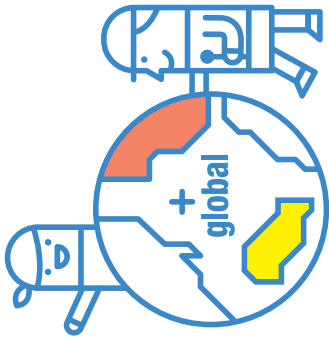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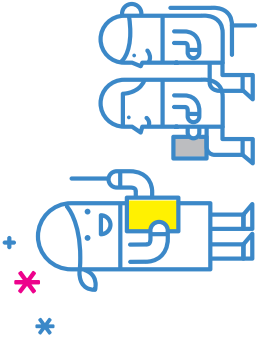
세대와 국가를 초월한 지식의 실천!

온·오프라인이 하나로 융합된 교육으로

새로운 내일의 패러다임을 이끌어 갈

당신의 푸른 미래를 키우겠습니다.

사이버한국외대는 '명품 교육서비스', '따뜻한 사회실현', '존경받는 대학'이라는 진정한 가치명제를 발굴하고, 가치명제를 실현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했다. 그 결과 작년에 이어 2016학년도에도 성공적인 입시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사이버한국외대의 2016학년도 입시의 특징과 성공의 원인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해보았다.



2016학년도 입시결과

2016학년도 입시의 특징과 성공의 원인을 분석하다

2016학년도 입시 결과
최근 5년 내 최대 기록!

2016학년도 입학생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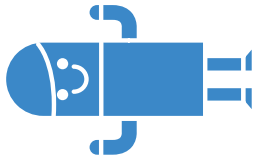
지원자 수 (전년대비)

22% 증가

2,417명



2015년



2016년

입학자 수 (전년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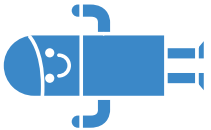
9.4% 증가

1,664명



2015년

1,821명



2016년

2016
혁신적인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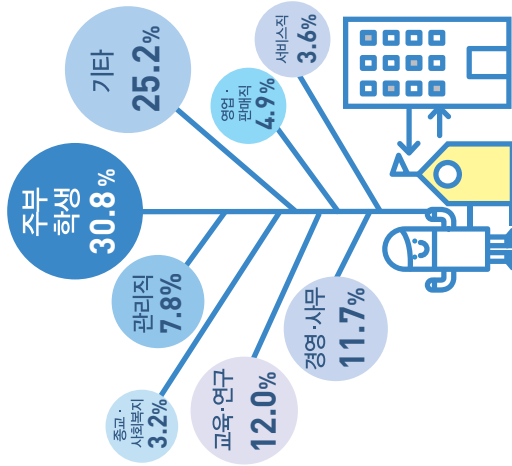
정상을 다시 확인한 사이버한국외대

2016학년도 가장 눈에 띄는 입시 결과는 지원자 수와 입학자 수가 최근 5년 내 최대를 기록했다는 점이다. 지원자 수는 2015년 대비 22% 상승했으며, 입학자 수 역시 세계적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2015년 대비 9.4% 증가해 눈길을 끌었다. 이로써 사이버한국외대는 정상을 확인한 작년 입시 결과에 이어 다시 한 번 그 위상을 입증한 셈이다.

이러한 입시결과와 바탕에는 사이버한국외대의 체계적인 노력이 있었다. 사이버한국외대는 2014년에서 2016년 사이 협약기관을 약 47.7% 늘리는 등 산업체 신규협약을 체결하고 관리를 강화하는 데 힘을 쏟았다. 또한, 2015년에는 멕시코, 과테말라, 인도네시아 등 세계 각지에서 현지 교민 및 현지인을 대상으로 입학설명회를 개최하여 세계 대학으로 가는 발판을 마련했다. 사이버한국외대는 'The Best Cy외대'를 목표로 콘텐츠 품질개선, 학생 서비스 확대, 획기적인 장학제도 도입 등 과감한 혁신과 도전을 추진한 결과 앞으로도 상승 곡선을 이어갈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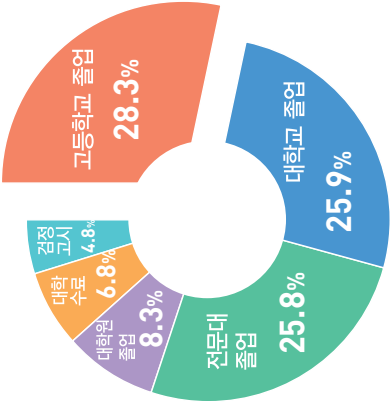
다양한 직업군으로 구성된 Cy외대

2016학년도 입시결과 입학생의 직업군은 매우 다채로운 것으로 파악되었다. 비중은 주부·학생 > 교육·연구 관련직 > 경영·사무 > 관리직 > 영업·판매직 > 서비스직 > 사회복지·종교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외에도 금융·보험 종사자, 정보통신 종사자, 법률 종사자, 경찰·문화·예술·방송인, 군인, 의료 종사자, 유통 무역 종사자 등 다양한 직업군에서 지원해 눈길을 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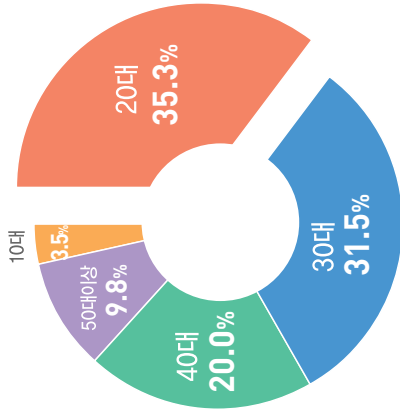
학력 구분 없이 선택하는 Cy외대

2016학년도 입시결과 입학생의 최종학력도 다채로웠다. 비중은 고졸 > 대졸 > 전문대졸 > 대학원졸 이상 > 검정 고시 순으로 나타났다. 학사학위 취득을 위해 입학하는 고등학교 졸업 학력의 입학자 수는 검정고시를 포함하여 33.1%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직무능력향상, 재교육에 목적을 두거나 은퇴 후 제 2의 인생설계를 위해 입학하는 고학력자의 입학생도 증가 추세에 있음이 확인되었다.



전 연령층에 사랑받는 Cy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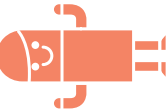
2016학년도 입시결과 연령대 비중은 20대 > 30대 > 40대 > 50대 이상 > 10대 순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적지만 10대의 비중 역시 전년 대비 37% 증가해 일반대학의 대안으로 사이버한국외대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30대 입학자가 전체 66.8%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며, 40~50대 이상의 입학자는 새로운 출발의 동반자로 사이버한국외대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거주 입학생 증가

2016학년도 입시결과 해외 거주 입학생 수가 2015년도 58명에서 2016학년도 169명으로 전년 대비 191.3% 상승했다. 해외 입학생의 거주지는 중국, 멕시코, 일본, 과테말라,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으로 다양했으며, 그 중 중국과 멕시코 해외 거주 입학생이 각각 전년 대비 24명, 22명 상승하며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해외에서 사이버한국외대를 찾은 입학생들은 현지어를 습득하거나 현지에서 한 국어 및 한국 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 입학한 것으로 확인됐다.

169명



58명



2016년

2015년

191.3%

전년대비 11명 증가

“누구나 지금 이 순간이 최고의 전성기이다”

미국 네브라스카 주립대학교에서
회계학과 종신교수로 재직 중에
돌연 한국행을 선택해
주위를 놀라게 했던 조장연 부총장.
그는 모교로 돌아온 후에도 누구보다
치열하게 하루를 살고 있지만
저녁마다 꼬박꼬박 2시간씩 걷는
여유도 즐기고 있다.
그는 지금 이 순간이
최고의 전성기라고 말한다.
매일 2시간씩 걸으며
자기 자신과 내밀한 대화를 나누다보면
어제보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음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그는 누구에게나 최고의 전성기는
지금 이 순간이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Q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의 정석을 보여주듯, 부총장님은 다양한 보직을 역임하며 수많은 도전과 맞서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가장 큰 도전은 무엇입니까?

현재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가장 큰 도전은 세계 역사상 유례 없는 인구감소입니다. 지금의 학령인구는 55만 명에 불과합니다. 현재 대학 입학 정원이 55만 명이니 대학은 공급과잉을 겪고 있는 셈이지요. 6년 후에는 학령인구가 40만 명으로 줄어든다고 하니 대학의 위기입니다. 최근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 정보통신기술) 시대로 돌입하면서 교육 환경도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몇 시간에 걸쳐 등·하교를 하고 교수들이 짜 놓은 강의 시간표에 따라 공부하는 교육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머지않아 사이버교육이 주교육 채널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이버한국외대의 운영을 맡은 사람으로서 이 시점에 맞닥뜨린 최대의 도전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대학이 아시아를 대표하는 사이버교육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는가 방법을 모색하는 일입니다.

Q 학업에 매진했던 시절, 화장실 가는 시간도 아껴가며 몰두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어떤 교훈을 얻으셨나요?

저는 머리가 좋은 편이 아닙니다. 그런데 미국의 메이저 대학에서 그것도 경쟁이 제일 심하기로 이름난 회계학을 전공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게다가 한국에서는 학부과정에서 행정학을 전공했던 터라 여러모로 불리했습니다. 머리 나쁜 사람이 우수한 사람들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어요. 덕분에 남들보다 일찍 졸업할 수 있었어요. 보통 박사과정을 마치려면 석사 후 6~7년 소요되는데 저는 다행히 2~3년 일찍 졸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열심히 하면 안되는 게 없다는 것을 그때 느꼈죠. 물론 좋은 스승을 만나는 행운도 있었습니다. 그 후론 무슨 일을 하든 자신감을 갖고 몰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Q 꾸준히 지켜온 스스로와의 약속이 있으십니까?

요즘 매일 저녁마다 두 시간 이상 걷고 있습니다. 걸으면서 내 안의 나와 대화를 나누며 데이트를 하지요. 제일 행복한 시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넓히는 데만 관심을 갖지 자기 자신과 사귄 생각은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걷기 시작한 것은 사이버한국외대의 운영을 맡으면서부터입니다. 취임 초기, 복잡한 난제들이 산적해 있었기 때문에 머리를 식히기 위해 시작한 건데 좋은 습관이 되었어요. 사소한 것 같지만, 매일 저녁 걸으며 하루를 반성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것은 이제 나 스스로와 한 약속이 되었습니다. 지난 겨울에 영하 20도까지 내려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어김없이 한강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그때 인증샷을 지인들에게 보냈더니 반응들이 뜨거웠어요.

편한 것만 바라보며 살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편한 것만 찾게 되는 것이 인간입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 타는 데까지 걷는 것도 ‘추워죽겠다’고 하는 세상인데 영하 20도의 날씨에 한강변을 걷는 모습이 큰 자극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CHO
JANG
YOUN



Q 부총장님의 인생에서
최고의 반전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내 인생 최고의 반전은 40대 초반에 있었습니다. 미국 네브라스카 주립대학교에서 회계학과 종신교수로 있다가 한국행을 결심했을 때였지요. 당시 1997년 외환위기가 한창이던 시절이었는데, 종신 교수를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오겠다고 하자 주변 사람들은 모두 미쳤다고 했어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봐도 그때 내 선택은 일생에서 제일 잘한 선택 중 하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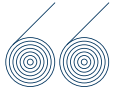
미국에서 종신교수가 되면 70대 초반까지 안정적으로 교수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40대 초반의 나이에 앞으로 30년 이상을 현재와 똑같은 방식으로 산다고 생각하니 너무 재미가 없더군요. 그래서 과감하게 한국행을 택했습니다.

모교인 외대로 돌아온 후 CPA(공인회계사) 지도교수를 맡았습니다. 1년에 1~2명 정도의 합격생이 나오던 시절이었는데 5년 만에 25명의 합격생을 배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런 성취감은 미국 대학에서는 경험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미국은 시스템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특정한 한 명이 노력하는 것만으로 좋은 성과를 내기 힘든 구조이거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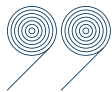
Q 부총장님의 인생에서 최고의 전성기는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비슷한 질문을 종종 받는데 그때마다 나는 '이 순간이 최고의 전성기'라고 말하곤 합니다. 부디 '지금 제일 잘 나간다'는 뜻으로 오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나는 매일 저녁 걸으면서 내 인생의 전성기를 갱신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살 날을 생각하면 지금 이 순간이 제일 젊고 좋은 날이잖아요.

하루를 생활하다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속상한 일도 부지기수입니다. 걸을 때마다 속사람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속상한 일들도 사라지고 굉장히 행복해집니다. 전날보다 내 그릇이 커진 느낌이 든다면 그 순간이 내 인생의 전성기가 아니겠어요.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 TOP
사이버대학으로서
전성기가 찾아올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Q 부총장님께서 꿈꾸는 인생의 최대 가치는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속사람에게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자식이고 배우자이고 주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생각하지요. 외부에서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라는 평판에 목을 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신경을 써야 할 것은 내 본질의 가치입니다. 즉, 내 속사람의 가치에 신경 써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이야말로 내 인생 최고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중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사람들이 어느날 갑자기 세상을 등지는 비보를 접하게 되는 경우가 있지요. 대부분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도 외롭다는 것은 속사람과 좋은 교제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여겨집니다.

Q 인생의 선배로서 사이버한국외대 재학생들을 위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뭔가를 이루고 싶다면 무엇보다도 내가 누구인가를 명확히 깨달은 연후에, '앞으로 3년 혹은 5년 안에 어떤 사람이 되겠다'는 중장기 비전을 설정해야 합니다. 이때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단계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현 상태를 개선해야 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지요. 우선, 말을 긍정적인 언어로 바꾸는 것이 시작이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구조를 바꾸어야 합니다. 본질적인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인데, 기업으로 치면 구조조정이지요. 종교를 갖는다거나 결혼을 한다거나 하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는 새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앞날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자신의 꿈과 비전이 어떤지에 따라 그에 맞게 새로이 시작하기 바랍니다.

Q 부총님께서 취임하시면서 우리 대학은 해외 대학과의 교류활동이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글로벌 대학으로서 사이버한국외대의 전성기는 언제라고 생각하고 계신지요?

사실 우리 삶의 최고 전성기는 지금 이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글로벌 대학으로서 사이버한국외대의 전성기는 아직 시작도 안 되었다고 하는 것이 솔직하고 정확한 표현입니다. 사이버 교육은 시공을 초월한 교육을 지향하는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숙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 TOP 사이버대학으로서 전성기가 찾아올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이버한국외대! 넌 어디까지 알고 있니?

국내 사이버대학교 중 유일한 '외국어 특성화' 대학인 사이버한국외대는 각종 대학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음은 물론, 국내 최고 수준의 국제교류 프로그램과 시·공간에 제약없이 학습할 수 있는 강의수강 환경 등 명품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으로 교육 경쟁력까지 강화했다. 인포그래픽을 통해 한눈에 사이버한국외대의 위상을 알아본다.



해당 분야 전공의 석·박사급
전문 튜터, 맞춤형 학습지원 서비스

신축교사 완공을 통한
첨단 교육환경 확보
**스마트 도서관
건립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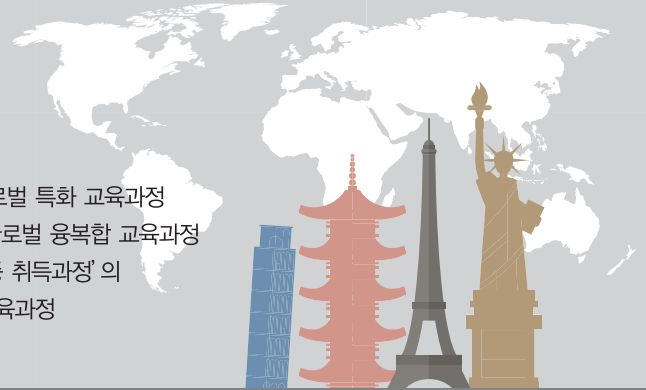
국내 유일 외국어 특성화
사이버대학교

No.1

- 사이버대학 최초 TESOL대학원 개원
- 사이버대학 최초 '스페인어학부' 개설
- 사이버대학 최초 '아세안지역경영학부' 개설 (베트남어 / 인도네시아어)
- 학생맞춤형 클립콘텐츠 최초 도입

1+1

- '외국어+문화'의 글로벌 특화 교육과정
- '언어+실용학문'의 글로벌 융복합 교육과정
- '실용교육+유망자격증 취득과정'의 취업 경쟁력 강화 교육과정



30% 업그레이드



명품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콘텐츠 평가 하위 20~30% 해당하는
교과목 개선, 재촬영,
집필교수 변경 등
콘텐츠 업그레이드 감행



365일 **24시간**
연중무휴

One Click-One Stop 헬프데스크 운영
Tel : 1644-5223
(해외 : 82-2-6907-6703)

3명 중 2명
누리는
막강 장학 혜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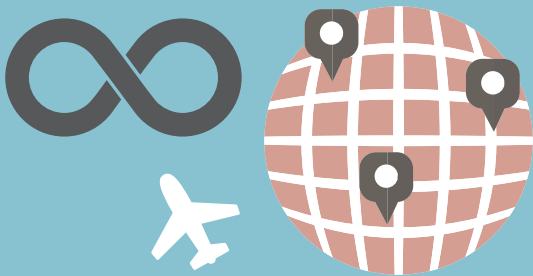
한국외대와의 교류

한국외대 교수진의 직강, 도서관 및 캠퍼스의 모든 시설 공유는 물론 한국외대와의 학점교류로 최대 35학점까지 이수가능



'집중학기제' 도입으로

신입생 3년,
3학년 편입생 1.5년 조기 졸업



- 인도네시아, 베트남, 중국, 일본, 멕시코 등 해외 대학 및 기관과 교육협약
- 해외 어학연수, 해외한국어교육실습, 해외문화 탐방 등을 통한 글로벌 인재 양성

Q&A로 풀어보는 사이버한국외대 궁금증

Q

졸업 시에는 어떤 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나요?

A 우리 대학은 졸업 시 4년제 **학사학위**는 물론 취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학부별 **다양한 자격증** 취득도 가능합니다.

Q

지방이나 해외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공부하나요?

A 입학에서 졸업까지 필요한 강의수강, 시험응시 등 모든 과정이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국내 **사이버대학 중 최초로** 글로벌 CDN(Content Delivery Network)을 도입하여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고화질 **명품교육 콘텐츠**를 원활히 수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 캠퍼스**를 통해 학사조회 및 강의수강 등도 가능합니다.

Q

온라인 수업이면, 교수님과 어떻게 만날 수 있나요?

A 모든 수업과 시험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나 **매주 토요일** 오프라인 특강을 통해 각 학부 교수님과의 만남이 가능합니다. 또한 오리엔테이션, MT, 학생축제, 동아리 모임, 각 지역 모임을 통해서도 **오프라인 활동**이 가능합니다.

Q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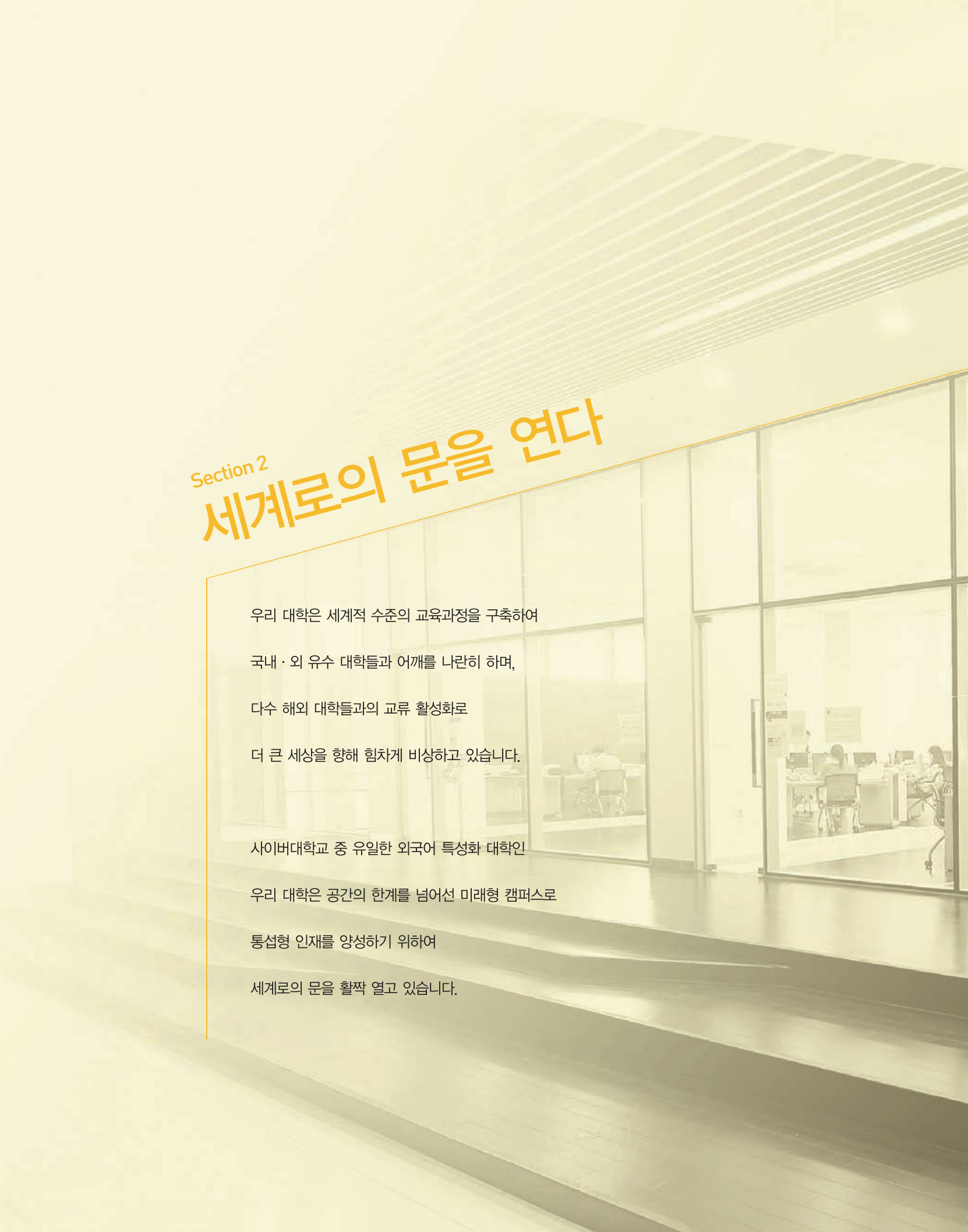
강의 구성과 수업 시간이 궁금해요?

A 한 학기 강의는 **15주차**로 구성되며 한 주치의 강의는 **약 75분가량**으로 진행됩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새로운 주치의 수업이 오픈되어 **시·공간의 제약 없이** 수강이 가능합니다. 또한, 2015년에는 **학생맞춤형 클립콘텐츠** 도입으로 학생 스스로 학습시간과 강의구성을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Q

매 학기 수강신청 학점은?

A 정규학과와 집중학기를 활용하여 한 학기 **최대 24학점**까지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정규학기에는 **최저 9학점**부터 **최대 18학점**까지 수강신청이 가능하며, 재학생들은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3.5이상**인 경우 **최대 21학점**까지 수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일과 학업의 병행으로 시간의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최저 6학점** 수강도 가능합니다.



Section 2 세계로의 문을 연다

우리 대학은 세계적 수준의 교육과정을 구축하여

국내·외 우수 대학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다수 해외 대학들과의 교류 활성화로

더 큰 세상을 향해 힘차게 비상하고 있습니다.

사이버대학교 중 유일한 외국어 특성화 대학인

우리 대학은 공간의 한계를 넘어선 미래형 캠퍼스로

통섭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세계로의 문을 활짝 열고 있습니다.



글로벌 해외 교류 프로그램 체험기

나는 세계를 무대로 공부한다

영어학부

2016년 아일랜드 DCU 동계 단기어학연수

아일랜드 생활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지난 1월 17일부터 31일까지 2016년 동계 단기어학연수에 참여하기 위해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오랜 시간의 비행 끝에 더블린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아일랜드에 위치한 DCU(Dublin City University)로 향했다. 그곳에서 우리는 각자 2주 동안 숙박을 할 홈스테이 주인과 만나 함께 각 가정으로 흩어졌다. 드디어 아일랜드 연수가 시작되는 것 같았다. 첫 수업시간에는 Placement Test를 보았다. 각자의 실력을 파악하여 반배치가 결정되고 교과서도 받았다. 정규 수업은 반드시 참석해야 하지만 오후 수업(Activity)의 참석 여부는 개인 의사에 따른다. 즉,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유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오후 활동은 휴 레인 갤러리 투어, 더블린 시티 투어 등 매주 색다른 활동을 즐길 수 있다. 특히 Conversation Class는 다국적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매주 금요일은 학습내용을 테스트 하는 시간을 갖고, 이것을 토대로 자신의 레벨을 업그레이드 할지 여부를 판단한다. 아일랜드 동계 단기어학연수 기간 중 자유시간이 주어지는 일요일에는 숨 막히는 절경을 자랑하는 골웨이, 유유자적한 킬케니 지역 등 연수 참가자들이 각기 코스를 짜 여러 마을을 여행하며 다양한 체험



으로 아일랜드를 느낄 수 있었다. 특히 기네스(Guinness) 맥주 공장 방문은 지금도 가장 기억에 남는다. 기네스 맥주 공장은 환상적인 박물관으로 꾸며져 있어 굉장히 인상 깊었다. 입장료를 내면 기네스 맥주 한 잔을 마실 수 있으며, 맥주 따르는 방법까지 배운 후 인증서를 받는다. 그날 저녁은 멋들어진 Bar에서 저녁을 먹고 템플비를 방문해 아일랜드의 전통 음악을 즐겼다. 일상으로 복귀한 지금, 되돌아보면 조금이라도 더 배우고자 바쁘게 보낸 하루하루를 보낸 것 같다. 아일랜드 연수는 나에게 있어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다. 마지막으로 연수에 함께 참여하신 교수님과 학우 여러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

영어학부 정미경 학우(14학번)

| 일본어학부 | 일본 규슈(九州)지방 '역사문화탐방'

전문가의 해설이 있는 알찬 탐방프로그램 구성

사이버한국외대 일본어학부는 지난 4월 3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일본 규슈지방에서 '역사문화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일본어학부의 윤호숙 교수와 정현혁 교수의 해설과 함께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은 일반인들에게도 참여의 기회가 제공됐다. 더불어 이번 탐방에 참여한 참가자들에게는 다양한 특전도 부여되었다.





세계로 뻗어 가는 사이버한국외대는 학생들을 글로벌 인재로 키우기 위해 많은 해외 대학들과 교육협약을 맺고, 해외 어학연수, 해외한국어교육실습, 해외문화탐방 등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더 큰 세상으로 발걸음을 내딛은 열정 가득한 학생들의 글로벌 체험기를 들어보자.

한국어학부

태국 한국어교원 파견 활동

‘한국’이라는 공통분모로 하나 된 시간

나는 2011년 교육부 주관 태국 현지 공립학교 한국어교원 파견사업을 통해 54명의 한국어 교사들과 약 5개월 동안 태국 중등학교에서 함께 생활했다. 처음 만난 태국 학생들은 외부인인 우리를 경계했지만 곧 태국어가 서툰 우리를 신기해하며 자연스럽게 친해졌다. 학생들은 한국어 수업과 한국문화 수업을 통해 조금씩 한국에 관심을 가졌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한국’이라는 공통된 분모로 소통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러던 중 태국에 대홍수가 발생하면서 우리는 즐거웠던 태국생활을 뒤로 하고, 임무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다음 해인 2012년에도 태국 한국어 파견교사 사업은 계속되었고 2016년 현재도 진행 중이다. 이후에도 나는 2011년 태국 파타야 방람룸 전문대학을 시작으로, 2012년 라영윗타야콤 중등학교, 2013년과 2014년 방콕 허왕 중등학교, 2015년 방콕 마타웁왓캄 중등학교 등에서 파견활동을 진행하였고, 이를 끝으로 5년간 태국 한국어교원 파견사업을 마무리했다. 서로의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학생들과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힘겨운 생활이었음에도 5년간 태국 파견사업에 참가한 이유는 바로 학생들이다.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나로 인해 한국을 알아가고 한국어



실력이 향상되어가는 과정을 지켜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 매 해마다 파견활동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나를 위해 선물을 준비하고, 아쉬움으로 서로 얼싸 안고 같이 운 학생들이 있었기에 5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이런 학생들을 위해 좀 더 잘 가르쳐주고 싶은 욕심에 나는 2013년도에 태국 파견과 함께 사이버대학원에 진학해서 2015년 8월에 학위를 받았다. 지금은 태국 허칸카타이대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며 즐겁게 생활하고 있다. 나에게 한국어 교사로서의 길을 가도록 도와준 학교와 교수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도 한국어 교사로서의 나를 지켜봐 주시는 ‘한국어학부 진정란 교수님’께 이 글을 통해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한국어학부 이상금 졸업생(10학번)

| 한국어학부 | 2016년 일본 니가타 한국어 문화 연수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으로 모인 열정

2007년부터 해외한국어교육실습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는 사이버한국외대 한국어학부는 지난 2월, 일본 니가타에서 한국어 교육 실습을 진행하여 해당 언어권 학습자들과 교사들에게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알렸다. 이번 연수단은 한국어학부 교수 2명과 재학생(예비교사) 14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해당 한국어 문화연수 참가자는 128명으로 전무후무한 기록을 남겼다.





인도네시아 우수 대학 및 기관과 활발한 교류활동으로 글로벌 특화 교육 강화

세계로 뻗어나가 더 큰 세상을 누린다

사이버한국외대는 일본, 멕시코, 과테말라, 인도네시아, 아일랜드 등 세계 각지의 대학, 기관들과 활발한 교류활동을 통해 국제적 자질을 갖춘 글로벌 리더 양성에 힘쓰고 있다. 최근 인도네시아 우수 대학 및 상공회의소와 MOU 체결에 성공한 사이버한국외대의 글로벌 교육 성과를 짚어보자.

최근 사이버한국외대에는 인도네시아 우수 대학 및 주요 기관으로부터의 교류협력 제안이 쇄도하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사이버한국외대는 인도네시아 민족대학교(UNIVERSITAS NASIONAL), Gajah Mada 대학과 MOU를 체결하고 학생 교류 방안을 협의하였으며, 인도네시아 교민들과 현지인을 대상으로 입학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또한, 5월 17일에는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KADIN INDONESIA) 방문단이 사이버한국외대를 예방하여 MOU를 체결했다. 사이버한국외대는 인도네시아 우수 대학 및 주요 기관과의 교류를 통해 국내 유일의 '외국어 특성화' 사이버대학으로서의 강점을 소개하고, 해외에서도 원활한 수강이 가능한 사이버한국외대만의 최적화된 수강 시스템과 국내 사이버대학교 중 최초이자 유일하게 특허를 출원한 학생 맞춤형 클립콘텐츠에 대해 강조했다. 조장연 부총장은 "우리 대학은 학생들의 학습 효율을 최고로 끌어 올리고자 학생 중심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제공한다."며 "온라인 교육의 장점을 살려 아세안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이들에게 사이버한국외대가 갖고 있는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이버한국외대는 앞으로도 인도네시아 우수 대학 및 주요 기관과의 실질적인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며, 교육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힘쓸 계획이다.

세계로 통하는 길을 열다

사이버한국외대는 지난해 미국 내 45개 지부와 20여만 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와 교육협약을 체결하였다. 멕시코와 과테말라에서는 멕시코한인회와 과테말라한인회와의 교육협약을 체결하고 입학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글로벌 대학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또한 학부의 경계를 넘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글로벌 특화교육과정을 방학 중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2016년도에 영어학부는 아일랜드의 Dublin City University 대학에서 '동계 단기어학연수'를, 한국어학부는 일본 니가타에서 '한국어 교육실습'을 진행했으며, 교육부 주관의 태국 지역 공립학교 '한국어교원 파견사업'을 2011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진행하고 있다.

학부장이 말하는 아세안지역경영학부의 모든 것

아세안을 리드하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다

아세안지역경영학부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세안지역경영학부는 지난 2015년에 개설되었으며 사이버대학 중 유일하게 동남아시아 지역의 언어와 지역학을 가르치고 있는 학부입니다. 6억 5천만 명의 인구를 가진 아세안을 선도하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 지역의 언어와 문화 등 지역학을 바탕으로 아세안경영 분야의 전문적인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아세안지역경영학부의 특징점은 무엇입니까?

아세안 지역은 인구가 많고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른 지역입니다. 우리 학부에서는 아세안 분야의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인재 양성을 위해 우수한 교수진이 현업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전문 지식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아세안지역경영학부는 말레이-인도네시아어, 태국어, 베트남어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을 준비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강의를 실시하고 있으며, 단기 해외어학연수와 문화탐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졸업 후에도 경제협력 발전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돼 졸업생들이 아세안 전역에서 많은 활동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세안지역경영학부의 비전과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 있는 인도네시아·베트남 한인회, 한인상공회의소 등 해외 유수기관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맺어 현지에 진출한 한인들의 어학 및 지역학 습득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국내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의 언어교육과 문화교육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아세안지역 전문가를 초청해 학생들의 니즈에 맞는 좋은 강의를 진행하는 등 현지 대학, 기업과의 협력 관계도 잘 구축할 계획입니다.

아세안지역경영학부
박연관 학부장

Mini Interview

인도네시아·
베트남 지역의
전문가를
꿈꾸다



아세안지역경영학부
임영호 교수

사이버한국외대는 인도네시아 및 베트남 지역의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활발한 교류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의 유수 대학 및 주요 기관과 MOU 체결, 입학설명회 개최, 학생 교류 방안 협의 등을 통해 인도네시아 지역전문가 및 실무자 양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힘쓰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12월 19일부터 약 1주일 간의 일정으로 조장연 부총장님과 함께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여 반둥공과대학(ITB)과 민족대학(UNAS) 및 Gajah Mada(UGM) 대학과 교육협약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교류활동으로 인도네시아에서 공부하는 한국인 학생들뿐만 아니라 현지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인도네시아 현지 학생들에게도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세안지역경영학부는 인도네시아에 이어 베트남과도 해외문화탐방, 해외 단기어학연수 등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바뀔수록 사회에서 요구하는 지식 수준이 높아질수록
교육을 통해 인재를 양성하는 일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그 어려움을 넘어서는 방안으로
변화와 혁신, 통합형 지식을 선택했습니다.

학생을 최고로 생각하는 우리 대학은
최고의 교수진과 실용적인 교육과정,
다양한 학생감동서비스와 안정된 시스템을 통해
내일의 가치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Section 3

내일의 가치를 창조한다





2016 대한민국 고졸 인재 Job Concert

Cy외대와 함께하는 ‘꿈을 향한 새로운 도전’

1:1 맞춤 상담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다

지난 3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일산 킨텍스에서 2016 대한민국 고졸 인재 잡 콘서트가 열렸다. 2013년부터 매년 잡 콘서트에 참여하고 있는 사이버한국외대는 선취업 후진학 및 일·학습 병행을 고민하는 고등학생들에게 대학 교육을 통해 더 큰 인재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번 잡 콘서트에서는 학생들에게 더욱 자세하고 실질적인 입학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금융회계학부 교수진과 입학학생처장이 직접 상담을 진행하여 큰 주목을 받았다. 부스를 찾은 학생과 교사·학부모는 사이버한국외대만의 ‘실용외국어 교육’, 외국어와 실용학문의 ‘융·복합교육’, 학생들의 필요에 기반한 ‘직장인 장학’, ‘진학장려 장학’, 재학 연한의 제한이 없는 ‘맞춤형 학습설계’, 집중학기제를 활용한 ‘최단기 조기졸업’, 사이버한국외대만의 ‘명품 콘텐츠’, ‘모바일 캠퍼스’와 ‘24시간 헬프데스크 운영’ 등을 통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 교육의 편리성 등에 큰 관심을 보였다.

최고의 명품 교육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다

이번 잡 콘서트에 참석한 한 학생은 “외국어를 전공하고 싶은데 실력이 기초 수준밖에 되지 않아 입학하더라도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면서도 “사이버외대의 1:1 맞춤형 학습지원 등의 체계적인 관리와 함께 해외어학연수와 같은 프로그램으로 더욱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겠다”는 기대를 보였다. 또한, 학생들이 많은 관심을 보인 금융회계학부의 최서연 학부장은 “학부과정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하고 외국어 연계과정으로 외국어 능력을 습득하여 전문지식과 실무를 겸비한 금융교육전문가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과 학업을 병행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최고의 명품 교육과 양질의 학생 서비스를 통해 학생 한명 한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CUFS 아름다운 동행 - 대전편

교수님과 동문을 함께 만날 수 있는 교류의 시간

지난 5월 21일(토), 사이버한국외대는 대전에 위치한 유성호텔 스타볼룸에서 'CUFS, 아름다운 동행' 입학설명회 및 재학생 초청 간담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2014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사이버한국외대 '아름다운 동행'은 재학생이나 입학 관심자가 있다면 어디든 찾아가는 사이버한국외대의 학생감동서비스 중 하나다. 김수진 입학학장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2016년도 첫 번째 '아름다운 동행'에서는 12년 역사 속에 변화, 발전하고 있는 학교소개는 물론 예비 입학생을 대상으로 입학 및 학사, 학교생활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지난 4월에 개최된 춘계학생행사 '2016 Cy외대 봄나들이' 영상을 시청하고, 퀴즈 및 경품 나누기 시간을 통해 즐겁고 훈훈한 분위기를 이어나갔다. 특히, 'CUFS, 아름다운 동행 - 대전편'에서는 참석한 재학생 및 졸업생을 비롯해 내·외국인 교수님들이 정성스럽게 마련된 식사를 마주하고, 함께 어우러져 사제 간의 즐거운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행사 종료 후에도 각 학부별 모임을 갖는 등 헤어짐을 아쉬워하기도 했다. 따뜻했던 날씨만큼이나 화기애애했던 이번 행사는 대전지역 뿐만 아니라 부산, 광주 등 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도 함께 참석하여 사이버한국외대에 대한 높은 관심과 열기를 다시금 느끼게 해주었다.



몸과 마음을 힐링하는 따뜻한 ‘가족 소풍’

온 가족 축제의 장 ‘2016 Cy외대 봄나들이’

사이버한국외대의 봄 축제인 ‘2016 Cy외대 봄나들이’가 지난 4월 30일(토) 성황리에 진행됐다. 경기도 포천시 소재 국립수목원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조장연 부총장을 포함한 전체 교원, 재학생, 재학생의 가족·친구 등이 참석하여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이 되었다.

특별한 플래시몹 공연

‘2016 Cy외대 봄나들이’의 메인 행사장인 국립수목원으로 출발하기 전 캠퍼스에 모인 모든 참석자들이 특별한 플래시몹(Flash Mob) 공연을 진행했다. 경쾌한 댄스음악의 플래시몹에 교수, 재학생 등 사이버한국외대 구성원뿐만 아니라 재학생의 가족 및 친구까지 함께 참여하며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김수진 입학학생처장은 “사이버한국외대 가족의 일치된 마음과 단합된 힘을 발산하고 따사로운 봄날을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이색적인 이벤트를 기획했다”며, “참석자 모두가 자율적으로 플래시몹에 동참하여 매우 감동적이고 뜻깊은 순간이 되었다”고 밝혔다. 이후, 지난해에 이어 유네스코 생물권보존지역으로 등재된 포천시 국립수목원에서의 ‘수목원 나들이’를 통해 몸과 마음을 힐링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가족과 즐거운 시간

사이버한국외대는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따뜻한 ‘가족 소풍’을 만들기 위해 ‘부채 만들기’, ‘보물찾기’, ‘경품 추첨 이벤트’ 등 학생 부모를 따라나선 아이들이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한편, 이번 2016 봄나들이 행사에서는 ‘제 1회 사이버한국외대 해외문학번역상’ 시상식도 함께 거행되어 사이버한국외대 가족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수상을 축하하며 기쁨을 더했다. 사이버한국외대는 ‘다니면 다닐수록 자랑하고 싶은 학교’, ‘자부심이 샘솟는 학교’가 되기 위해 조장연 부총장을 필두로 ‘품격 있는 학생감동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번 봄나들이 행사에서는 약 500여 명의 신청자가 몰리는 등 학생들의 뜨거운 관심과 열정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Cy외대 명품 교육서비스

365일 학생감동서비스 상상 이상의 감동과 놀라움을 선물한다

사이버한국외대는 '따뜻한 학교, 존경받는 대학'이라는 기치 하에 '학생 중심'의 학생감동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사이버한국외대는 2004년 개교 이래 국내 사이버대학 최초로 One Click-One Stop 헬프 데스크를 운영하여, 학생들에게 연중무휴 24시간 IT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입학부터 졸업까지 어려움 없이 학습할 수 있도록 '튜터(tutor)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튜터제도는 개별학습관리자인 튜터가 학생 개개인의 학습을 도와주는 제도로 온라인 강의의 부족한 점들을 보완하고 있다. 교과목별로 관련 분야의 석·박사급의 튜터가 배치되어 온·오프라인을 통해 수시로 1:1 학습지도, 학습진도관리, 외국어 첨삭지도 등 맞춤형 학습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먼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 교수들이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인 <아름다운 동행>을 통해 친목 도모뿐 아니라 학술 동아리 출범, 지역 스터디 모임 개설 등 학생들의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재학생 인터뷰

경쟁력을 갖춘 전문 인재의 양성

사이버한국외대 사회계열을 책임지고 있는 두 학과의 매력은 무엇인지 재학생 인터뷰를 통해 들어본다.

막연한 꿈을 현실로 만들어준 공공관리학부!

공공관리학부 15학번 정재형

공공관리학부

현직 의원들이 인정하는

국내 유일의

지방의회 전문 학위과정



공공관리학부만의 커리큘럼 장점

저는 공공관리학부에 재학 중인 정재형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지역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고, 여러 방법을 알아보다가 NGO에서 활동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또 우리 지역을 더불어 살아가는 곳으로 만드는 데에 보탬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의 일이 어떻게 결정되고 진행되는지,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학습의 필요성을 느꼈고, 우리 대학 공공관리학부로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학부는 지방의원이나 지역사회의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지향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학부를 졸업한 이후에는 의회 진출을 준비하는 등 지역사회 지도자 역할을 더욱 더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분야 최고 교수진의 질 높은 강의를 들을 수 있고, 박사학위 소지자에게 직접 튜터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우리 학부의 큰 장점입니다.

직업 정치인을 꿈꾼다면

직업 정치인을 꿈꾼다면 우리 학부가 유일한 선택지일 것입니다. 정치와 관련된 유용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하나뿐인 대학 학위과정이기 때문이지요. 또한 관리자나 지도자적 역할을 염두에 두셨다면 정말 추천하고 싶은 과정입니다. 기업에서 중견간부 이상이거나 직접 사업체를 운영하신다면 중요한 의사결정일수록 대관(對官) 업무의 비중이 큼을 실감하실 것입니다. 우리 학부의 교육과정을 통해 국가와 지방의 정책이나 사업이 어떤 논리나 체계 하에서 실질적으로 결정되는지, 관련 법규가 어떠한지에 대해 전문적인 이해력을 갖추으로써, 대관업무를 추진하는 데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학부 학습활동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 일하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학부에서 좀 더 심도 있는 학업을 계속 할 계획입니다. 졸업 후 대학원 진학을 꿈꾸고 있고, 대학원 과정을 마친 뒤에는 지역사회의 NGO에서 전문가로 활동하고 싶습니다. 공공관리학부에서 얻은 전문적 지식을 통해 보다 민주적이고 풍요로운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해 볼 계획입니다.



금융회계학부

선택형 목표달성이 가능한

교육 콘텐츠로 스마트한

금융·회계 전문가를 꿈꾸다

사이버외대를 통해 제 2의 길을 찾다

금융회계학부 16학번 성윤경

금융과 회계분야의 융·복합 역량을 키워주는 금융회계학부

저는 공대에서 학사와 석사 졸업 후 현재 코닝정밀소재에 재직하고 있으며 2016년 1학기 금융회계학부에 편입학하였습니다. 금융회계학부는 국내 사이버대학 최초로 금융과 회계 분야를 융합하고, 전문적인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기 때문에 금융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함께 실무역량도 키울 수 있는 학부입니다.

우리 학부의 장점은 금융과 회계의 두 축을 중심으로 세분화된 각 분야의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학습할 수 있고, 다른 사이버대학에서 배울 수 없는 교육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금융교육전문가 수료증 과정과 국가공인 회계자격증 취득과정은 진로개발과 실무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제가 사이버외대 금융회계학부를 선택하게 된 가장 큰 이유입니다. 저는 평소 업무과정 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도 두 분야에 관한 지식의 필요성을 느꼈고, 회사생활을 하면서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이버대학교를 비교하던 중 금융회계학부의 체계적이고 차별화된 교과목들에 매료되어 망설임 없이 사이버외대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한 학기가 지난 지금 제 선택에 만족하며 글로벌 경쟁시대에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인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실무에 활용가능한 교육 프로그램

금융회계학부에 입학하고, 그동안 학습한 내용들이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공대 출신이라서 인문 분야 종사자들과 접점이 없었는데, 사이버외대에 진학한 이후 여러 분야의 사람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다각도로 생각할 수 있는 법을 배웠고, 이를 통해 업무에서 아이디어를 도출할 때 다양한 접근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융회계학부를 선택하기 위해 고민 중이라면 이 분야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모든 학문이 그렇듯이 즐길 수 없으면 흥미가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생활에서 이 분야에 얼마나 궁금증이 생기는지를 고민하고 자신의 적성과 비교해 보는 것이 판단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졸업생 인터뷰

새로운 시작을 위한 특별한 시간

사이버한국외대를 벗어나 더 넓은
세상으로 꿈을 찾아 나선 사람들.
새로운 미래를 향해 첫 발을 내디딘
이들의 당찬 소감을 들어본다.

사이버한국외대에 진학한 것은 최선의 선택

저는 현재 한자리에서 10년 동안 공인중개사로써 소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이나 모자가 정에는 무료로 주택을 임차해주고, 독거노인과 같은 수급자에게는 주택임대차는 물론 도배장판 일까지 지원하여 이분들이 생활해 나가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로 통장님 및 동사무소와 연계하여 일하며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가 사이버한국외대에 진학한 것은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회사 일과 집안 일을 하면서 학업을 병행할 수 있고, 또 국내 유일 외국어 특성화 대학으로써 실용적인 외국어 교육과 국내 최고의 교수진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수한 온라인 강의와 토요일 오프라인 수업을 통해 교수님과 학우님들과 함께 호흡하며 공부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었습니다. 또한 사이버한국외대는 각종 모임과 동아리 활동, 회화수업 및 실습은 물론이고 다양한 해외 연수 및 문화탐방의 기회까지 제공하고 있어 나와 세상을 넓혀주는 통로라고 생각합니다.

사이버한국외대에서 얻은 값진 인생 경험

저는 그동안 갖고 있던 언어실력으로 중개사무실에 찾아오시는 중국인들과 활발히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중국어 HSK 6급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1년 동안 중국 연수를 다녀올 계획입니다. 중국인들의 눈높이에 맞는 언어실력을 함양하여 제 분야에서의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저는 사이버한국외대를 통해 저의 인생에서 값진 경험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에 진학한 뒤, 저는 제 자신에게 저만의 색을 입혔고, 학부에서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세계를 보는 시선이 온화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학업과 일을 병행한 것은 저에게 가장 큰 도전이었습니다. 쉽지 않았던 선택이었지만, 도전하는 자만이 성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이와 같은 저의 도전은 또 다른 꿈을 꿀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인생은 도전하는 자의 몫입니다.

도전하는 자만이 얻을 수 있습니다



중국어학부
12학번
김서우



행동하면 현실이 되고, 멈추지 않으면 결국 도달한다



일본어학부
05학번
양준영

사이버한국외대를 선택한 이유

저는 현재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기술사업부에
서 지식재산 운영 및 관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
다. 더불어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과정에
있으며 국제관계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처음
사이버한국외대를 선택한 이유는 사이버대학임
에도 불구하고 교수님과 직접 대면하여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장점 덕분이었습니다.

또한, 사이버한국외대는 타 대학보다 등록금이
저렴하며 다양한 장학혜택이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매 학기 장학금을
받으며 등록금에 대한 부담없이 학부를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은 여러분에게 수많은 기회
와 가능성을 제공해 주는 곳입니다. 특히 저처
럼 부담 없는 학비로 최고의 성과를 도출할 수
있다면 그 선택은 가장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신을 향한 끊임없는 질문

입학을 고민하는 친구들에게 조언을 하자면, 입

학 전에 자신에게 본질적인 질문을 했으면 합니
다. '나는 왜 대학을 가고 싶은가? 나는 왜 대학
을 가야 하는가?' 즉, 대학을 다니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것이 명확해야 합니다.
지원하시는 분들이 대학 공부를 해야 하는 목표
가 명확하다면 사이버대학교만큼 좋은 곳도 없
습니다. 경력과 학업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는 곳
이거든요. 한 가지를 얻기 위해 다른 한 가지를
희생하거나 포기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저는 당분간 지금과 같이 일과 공부를 병행하려
합니다. 특히 현재 하고 있는 국제정치 공부를
더 전문적으로 해나갈 생각입니다.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면 꿈으로 끝나겠지만 행동을 하면 현
실이 됩니다. 느리지만 아주 꾸준하요. 그 움직
임은 결국 좋은 결과로 제게 돌아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느낀 건 멈추지 않으면 결국 도
달한다는 것과 한계는 나 스스로가 만든다는 것
이었습니다. 입학 예정인 분들도 제가 사이버한
국외대에서 느낀 감동을 함께 느끼셨으면 좋겠
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뒹아간다



영어학부
08학번
최윤원

외국어 강의에 최적화된 체계적 시스템

저는 사이버한국외대를 졸업한 이후, 한국외대 대학원에 입학하여 신문방송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효과적인 학업 생활을 하기 위해 사이버한국외대 진학을 결심했습니다. 보통 사이버대학교는 혼자서 학업에 매진하는 경우가 많아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특히나 저는 외국어계열의 학부 특성상 면대면 회화 수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주 정기적으로 제공되는 오프라인 특강을 비롯하여 스터디 모임과 토론 학습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덕분에 주변 학우들과 서로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교수님과의 상담을 통해 실력을 더욱 향상할 수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앞을 향해 나아가는 꿈

저는 현재 전공하고 있는 신문방송학을 더욱 심도 있게 공부하여 훗날 미디어 학문의 연구자로

활동하는 것이 꿈입니다. 학업에 매진할수록 학문의 길에는 왕도가 없음을 나날이 실감합니다.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노력할 때 뜻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부시절, 저는 교수님의 특강 및 상담을 통해 저의 진로를 결정할 수 있었고, 지속적인 교수님의 관심과 도움 끝에 현재 신문방송학 전공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원을 진학한 현재까지도 사이버한국외대 동기들과 진로에 대한 고민을 나누기도 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시는 많은 선배님들의 폭넓은 사회 경험에서 도움을 받아 앞으로의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앙드레 말로의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뒹아간다”라는 말처럼 꿈을 간직하고 노력하는 사람의 모습은 언제나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사이버한국외대에서 여러분의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한글,
그 아름다움

꽃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아름다운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익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리가 되고 싶다.

스페인어학부는 꿈으로 가는 다리가 되어준 곳입니다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

제가 스페인어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된 데는 남다른 사연이 있습니다. 스페인어를 전혀 하지 못했을 때 스페인 여행을 하면서 습득하게 된 스페인어 몇 마디에 완전히 매료되고 만 것이죠. 결국 직장 생활을 하면서 스페인어를 배울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다가 스페인어학부에 입학했습니다. 사이버한국외대 스페인어학부는 교수진이 전원 한국외대 교수들로 구성되어 있어 더욱 믿음이 생겼고, 주경야독을 해야 하는 직장인에게 온라인 수업은 더할 나위 없는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언어 학습이라는 것이 단계가 오를수록 더 어려워지고 외워야 할 분량도 많아지기 때문에 일과 병행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에 모두 참여했고, 아울러 그곳에서 만난 학우들과 서로 격려를 주고받은 덕분에 외로운 배움의 과정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5억 스페인어 인구와 소통할 수 있는 길

저는 현재 멕시코의 수도인 멕시코시티 소재 <멕시코한국문화원>에서 한국과 사랑에 빠진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서른 중반에 아직 꿈에 불과한 뭔가를 위해 하던 일을 그만두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 교수님의 관심과 사랑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오랜 노력 끝에 꿈꾸던 스페인어권 한국어 교사가 된 제게 사이버한국외대 스페인어학부는 꿈으로 가는 다리가 되어준 곳입니다. 오늘도 주경야독으로 땀 흘리고 있는 후배들, 그리고 희미하게나마 꿈을 디자인하기 시작하면서 그 꿈으로 다가갈 수 있는 길을 찾고 있는 미래의 후배들에게 사이버한국외대 스페인어학부의 문을 두드리라고 조언하고 싶어요. 사이버한국외대가 5억 스페인어 인구와 소통할 수 있는 길이 되어줄 것입니다.

‘학생 중심’의 학생감동서비스

모든 것은 ‘학생 중심’에서 시작된다

사이버한국외대의 변화와 혁신은 오직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학생을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이버한국외대는 다양한 ‘학생 중심’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최고 리더 양성을 위한 사이버한국외대의 학생감동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자.

장학 제도

등록금, 이제 고민하지 마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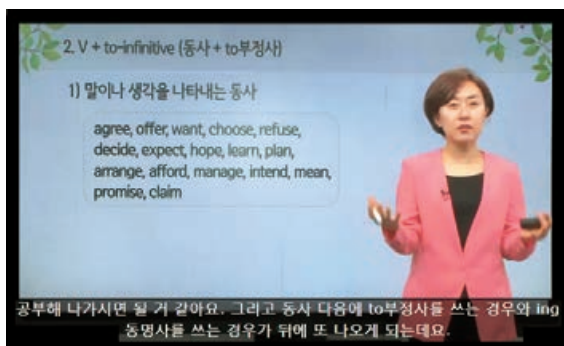
사이버한국외대는 성적 위주의 장학제도에서 탈피하여 진정으로 필요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한다는 ‘Need-Based’ 장학제도를 구축해 2016학년도에도 적용하고 있다. 특히 ‘외국어 특성화’ 대학에 부합하는 글로벌리더 장학금, 글로벌인재육성 장학금 등 다양하게 특화된 장학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재학생 3명 중 2명 이상이 혜택받고 있는 장학제도는 사이버한국외대 학생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사이버한국외대의 장학제도는 성적 위주의 장학제도에서 탈피하여 진정으로 필요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따뜻함’에 근간한다.

직장인 장학금, 진학 장려 장학금, 우수인재 장학금, 글로벌인재 육성 장학금 등 특화된 장학제도는 물론 입학 장학금, 성적 장학금, 가족 장학금 등 다양한 장학 제도가 있다.

이 외에도 사이버한국외대는 경력 단절 여성, 장기 실업자, 여성 가정,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가족이 있는 학생 등 역경을 딛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응원하고자 희망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결혼 이민자와 자녀, 외국인 근로자와 자녀에게는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다문화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60세 이상의 만학도에게는 시니어 장학금, 전업주부에게는 전업주부 장학금으로 학업 의욕을 높여주고 있다.

이처럼 사이버한국외대는 다양한 장학 제도를 운영해 등록금에 대한 부담을 줄여 학생들이 학업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모바일 자막 서비스 도입으로 학업 성취도를 높여요!

사이버한국외대는 사이버대학 최초로 모바일 강의에 자막 서비스를 도입했다. 학습자는 모바일 자막 서비스를 통해 효과적인 학습뿐만 아니라 학업 성취도 역시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온라인 수업의 경쟁력은 우수한 콘텐츠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 가능성이 열려 있을 때 확보된다. 이에 사이버한국외대는 미디어 싱크 기술을 적용해 발화내용 텍스트를 해당 강의의 영상 속에 싱크를 맞추어 자막 형태로 제공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는 사이버대학 최초로 모바일 강의에도 자막 서비스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강의 자막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장애인 학생을 위한 것이지만, 반복학습을 필요로 하는 어학 공부에도 매우 유용한 기능이다. 학습자는 외국어 자막 기능을 통해 학습 성취도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신청자의 학습동기를 반영해 편의성과 학습의욕을 높였어요!

사이버한국외대는 학생들의 학습 효율을 강화하기 위해 e-Learning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한 클립형 교육 콘텐츠를 도입하고 있다. 지난 12월 14일, '학습동기를 반영하여 번들 및 클립을 추천하는 기능을 구비하는 과목이수관리시스템 및 과목이수관리 방법'에 관한 특허를 출원했다. 이는 국내 사이버대학 중 최초이자 유일한 특허 출원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클립형 교육콘텐츠는 15~20분 내외로 구성된 작은 단위의 교육용 동영상(Clip)을 기본으로 하여 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된 콘텐츠를 말한다. 이를 통해 학습자 본인이 관심 있는 교육 내용과 수준으로 독립적인 콘텐츠를 선택 및 조합하여 학생 주도의 교과과정을 수립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자기주도형 학습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자기 계획 하에 학습 내용을 선택하여 구성하게 할 때, 수강자의 수강의욕이 고취되고 학습 동기도 강화된다는 연구결과가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다. 따라서 번들 및 클립형 콘텐츠는 학습 및 교육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경쟁력을 갖는다.

더불어 이번 특허는 신청자의 학습동기를 반영하여 해당과목에 대한 번들 및 클립을 추천하는 기능을 제공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번들 및 클립 콘텐츠는 과목이수 신청단계에서부터 커리큘럼 구축상의 신청자의 재량범위를 넓힐 뿐만 아니라, 학습 동기에 부합하는 내용을 선택하고 학습하도록 함으로써 편의성을 증대시키고 학습의욕을 강화시킬 수 있다.



사이버한국외대 스페인어학부가 마련한 스페인 영화제 'CINE Club'으로 즐거운 시간



지난 5월 28일 사이버한국외대 사이버관 8층 회의실에서 스페인어학부가 마련한 스페인 영화제 'CINE Club'이 진행되었다. 이번 영화제는 스페인문화원 서울교실(Aula Cervantes)과 주한스페인대사관 후원으로 열렸으며 많은 학우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번 영화제에서 학우들이 관람한 영화는 'Vivir es fácil con los ojos cerrados'로 스페인의 아카데미상이라 불리는 2014년도 고야상(Los Premios Goya) 수상작이다. 이날 영화제에서는 스페인문화원에서 제공하는 맛있는 츄러스와 함께 영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즐거운 대화의 시간도 이어졌다.

스페인어학부는 사이버대학 중 유일하게 사이버한국외대에만 개설되어 있는 학부로 최근 스페인어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면서 지원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 추세다. 또한 스페인어학부에서는 스페인어 학습은 물론, 스페인과 라틴아메리카의 문화 및 지역사정까지 배울 수 있어 스페인·라틴아메리카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다.

사이버한국외대 TESOL대학원

제 10차 콜로кви엄: 영어교수·학습의 새로운 트렌드 〈개정 토익과 교육 게이미피케이션〉 성료



사이버한국외대 TESOL대학원이 지난 5월 21일(토), 사이버한국외대 사이버관에서 '영어교수·학습의 새로운 트렌드 〈개정 토익과 교육 게이미피케이션〉'을 주제로 한 '제 10차 콜로кви엄'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콜로кви엄은 '신(新) 토익'과 '교육 게이미피케이션'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에 TESOL대학원은 사이버

한국외대 및 글로벌사이버대, 온·오프라인 토익학원에서 활약하고 있는 토익 전문가 이윤우 교수와 올해 초 '교육 게이미피케이션 전문가 과정' 강좌를 개설한 교육 게이미피케이션 전문가 김상균 교수를 초빙하여 특강을 진행하였다.

이번 콜로кви엄에서는 지난 5월부터 새로운 유형으로 개정된 '신(新) 토익' 유형 분석부터 실전문제 풀이까지 자세한 내용을 다루었다. 또한 게임의 재미를 교육에 접목시킨 '교육 게이미피케이션'의 이론뿐 아니라 실제 교육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다양한 사례 등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콜로кви엄 참석자들에게 제공했다. TESOL대학원에서는 최신 교육 트렌드를 알 빠르게 전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콜로кви엄을 개최하고 있으며, 매회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를 초청해 진행하고 있다.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2016학년도 2학기 신·편입생 모집

한국외국어대학교가 만든 정규 4년제 대학인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가
2016학년도 2학기 신·편입생을 모집합니다.



전형일정 2016. 6. 1(수) ~ 2016. 7. 19(화)
※ 2016-2학기는 2차(추가) 모집 없음

모집학부 영어학부, 중국어학부, 일본어학부, 한국어학부, 스페인어학부,
아세안지역경영학부, 금융회계학부, 공공관리학부

모집인원 일반전형 700명
특별전형 1,413명

지원자격

신입학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학력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

편입학 2학년 편입학 :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4년제 대학교 1년 이상 수료,
35학점 이상 취득한 자

3학년 편입학 :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4년제 대학교 2년 이상 수료,
70학점 이상 취득한 자



* 자세한 사항은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홈페이지(<http://www.cufs.ac.kr>)에서
살펴보실 수 있으며, 궁금한 점은 전화나 이메일, 카카오톡으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02-2173-2580 이메일 ipsi@cufs.ac.kr 카카오톡ID @cufs

2016-2학기 교내 입학설명회 일정

구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일자	6. 11(토)	6. 18(토)	6. 22(수)	6. 29(수)	7. 9(토)	7. 16(토)
시간	13:30~14:30	14:30~15:30	19:30~20:30	19:30~20:30	13:30~14:30	13:30~14:30
장소	801호	303호	801호	801호	303호	303호

* 시간 및 장소는 행사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CYBER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02450)

Tel. 02-2173-2580 Fax. 02-966-6183 카카오톡 ID. @cufs

www.cufs.ac.kr | m.cufs.ac.kr